

떠나는 潘 “한국 행보 확대해석 마시라”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스 코커스(Youth Caucus) 프로그램에 참석해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 NGO 콘퍼런스 참석 후 출국...“유종의 미 거두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방한 이후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하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비정부기구)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관훈클럽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과대 확대 증폭이 된 면이 없잖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데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방한 행보와 관련해 “오로

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로 저의 임기가 7개월이 남았다”며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총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의 기조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반 총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지금 아프리카 순방 중에 계시죠”라며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농촌 개발과 사회 경제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박 대통령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아프리카에 알리는 일에 전념하고 계신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세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임기 종료 이후,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던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총청권 출신의 반 총장이 방한 기간 ‘총청+TK(대구경북) 연대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언급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 총장은 경주 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한국 및 일본 체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난다.

반 총장은 방한 후 첫 일정으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보겠다”며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임기 종료 후)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또 안동 하회마을 서에 류성룡 고백 초상화를 찾는 등 TK 지역을 방문한대 이어 김중필 전 국무총리(JP)를 예방해 배석자 없이 독대하는가 하면 고건 전 총리 등 정·관계 원로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방한 이후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하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비정부기구)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관훈클럽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과대 확대 증폭이 된 면이 없잖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데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방한 행보와 관련해 “오로

시행도 못해본 ‘文 혁신안’ 폐기 기로

더민주 전대를 논의 본격화...사무총장·최고위원회 부활 여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27일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민주의 차기 당권 경쟁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더민주 전대 준비위(위원장 오세재)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옥주 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변인은 전대 시기와 관련, “8월말이나 9월초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9월로 넘어가는 건 정기국회도 시작하는 만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도부 및 최고위원·사무총장 부활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송 대변인은 당 대표 선출 방식 등과 관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 부활 등 혁신안 폐기 여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 세부적 (논의)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혁신안을 폐기하고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만일

전준위원들이 당헌·당규에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제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은 열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게 된다.

사무총장제를 대체하는 5분부장 체제는 그나마 운영을 해봤지만, 최고위원제 폐지안은 한 번도 적용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안을 이대로 폐기해선 안 된다는 반발도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고위원제 폐지 문제는 전준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현재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 대표로, 차순위 후보들을 최고위원으로 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느냐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지 쪽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지도부 개편 논의는 최고위원제 폐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략 투표론 호남 무시로 비쳤을 것”

더민주 싱크탱크 총선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국민의당에 하더라도 후보는 더민주를 뽑아달라”고 전략적 투표를 호소한 것이 호남 선거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더민주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이진복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4·13 총선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더민주의 전략투표론은 결국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 정당에 대한 사표방지 심리를 겨냥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호남에는 ‘호남무시’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될 후보를 찍어달라”는 더민주의 주장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내걸고 맹목적인 호남의 지지를 요구했던 과거의 모습과 유사하게 비쳐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속설이 깨진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주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기문 대선 지지율 28.4% 1위...문재인 16.2%·안철수 11.9%

중앙일보 조사

호남선 안철수 이어 2위

반기문 바람을 뜻하는 이른바 ‘반풍’(潘風)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반 총장이 서울로 돌아오는 내년 초까지 지위를 계속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 총장은 방한 기간 과감한 언행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높였고 이런 기대감은 즉각 보수층 결집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장,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반 총장은 단번에 선두로 올라섰다. 30일 중앙일보가 27~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4%가 반기문 총장을 뽑아 1위에 올랐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16.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9%로 집계됐다.

반 총장은 대구·경북에서 45.1%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충청(30.6%)과 부산·울산·경남(30.0%)이 뒤를 이었다.

호남에서 반 총장은 18.0%의 지지율로 안 대표(23.1%)에 2위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전 대표는 15.7%에 그쳤다.

광주일보가 지난 4월20일 여론조사 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전

남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응답률 1.9%)에서는 반 총장이 11.0%의 지지율을 기록, 안 대표(35.5%)와 문 전 대표(20.6%)에 이어 3위를 기록했었다. 반 총장은 전남(9.9%) 보다 광주(1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새누리당 지지층 19.1%와 국민의당 지지층의 13.7%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반 총장이 서울에 부재하다는 점과 향후 혹독한 현실 정치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반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보내고 있다.

반 총장 열풍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반 총장이 여권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와 결합한다면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연말 사무총장 퇴임 때까지 국내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 핵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 마련을 시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낙선’ 여야 중진들 새출발

우윤근 美 대학 연구원으로...이인제 로펌법·황우여 대학 출강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회 입성에 실패한 여야 중진 인사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더민주 우윤근(3선) 전 원내대표는 오는 7월 미국으로 출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내며 미국 대선 등을 지켜볼 예정이다.

강기정 전 의원(3선)은 당초 독일로 연수를 갈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전 당대회 및 대선 과정에서 역할 등을 통해 정치적 재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의 경력을 살려 지역구였던 인천에 변호사 사무실을 낼 예정이다.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